

호스피스 대상자와 의사소통

춘천 성 골롬반의원 호스피스과

노라 수녀

이 세상은 무에서부터 창조되었고 다시 무로 돌아감으로 아무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도 그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다. 말기 암환자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닥쳐오는 죽음을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환자는 생명의 연장을 희망한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몸은 더욱 쇠약해지고 모습은 변해가며 마음의 갈등은 더 심해진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진다. '나는 암에 걸렸다. 몇 개월밖에 못산다'는 의식이 점점 심해지는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있어 호스피스 정신을 가진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다.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함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을 줄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지만 동시에 같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분야의 의사소통이다.

호스피스의 범위

호스피스는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어야 한다. 누구나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공포심을 느끼므로 죽음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갖도록 해야한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은 후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환자의 의문에 무슨 응답을 줄 수 있는가, 약물로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 줄 수 있는가,

최근 환자들에게서 많이 들을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살하고싶다' '안락사 시켜달라'는 것이다.

경제적어려움과 통증, 핵가족으로 인한 고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흘려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환자의 갑작스런 변화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끌어 주면서 마음의 고통을 해소시켜 희망과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말기 암환자들을 보살필 때 환자의 모든 능력을 꺼내도록 하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죽음을 놓고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킬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걱정스러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게 아픈 사람을 화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 친구의 죽음같이 슬픈일을 화제로 삼았다가 눈물이 쏟아져 죽어가는 사람까지 울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렇게 평정을 유지하려고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무관심의 표시로 보일수도 있다. 때로는 '거기에 함께 있는 것' (be there) 즉 따스한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하며 함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사소통이다.

내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세계의 각 종교마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내세를 믿지 않은 사람도 죽은 후의 자기존재에 대한 생각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의식에 집중함으로써 내적인 위안과 희망을 찾게 할 수 있다. 환자의 영적

인 보살핌을 하는 사람은 주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환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환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관 리

1) 죽음에 대하여 환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이나 신앙심을 심어주는 말이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어려운 이 시기를 환자와 함께 여행한다는 기분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3) 환자가 가진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사소통을 통해 그 종교 안에서부터 위안과 희망을 찾게 해야 한다.

4) 환자의 존엄성과 신앙을 인정하고 강제적인 개종이나 전교를 피해야 한다.

5) 설교하는 자세보다 들어주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6) 상담자의 자세: 의미가 있는 삶을 가져야 한다. 뚜렷한 종교의식이 있어야 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의식을 알아야 한다.

위기에 처한 상대방에 입장에 대한 감수성과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

7)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들은 혼미해진다든가, 헛소리 한다고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또한 의사소통이다.

8) 상대방과 신뢰감이 있는 대인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환자의 말속에서 마음의 아픔을 알아들어야 한다.

환자의 느낌과 같이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반영적 청취” 라고 한다.

9) 청취의 필요성: “반영적 청취” 의 기술은 상담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상담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 말로 표현하기가 괴로운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아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위 내용과 같이 상담자가 환자의 감정을 듣지 않으면서 긴말을 한다면 설교하는 것과 같다.

11) 또한 상대방의 몸짓(바디랭귀지- 육체적 언어)을 잘 의식해야 한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봉사자가 눈을 감고 응답하지 않은 환자의 모습이 “빨리 가면 좋은데” 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또, “날씨가 좋은데” 하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일기예보를 듣기 원하는 것보다는 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좋은 날씨를 즐길 수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아쉬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 등을 의미 있게 들리는 말들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

문 제 점

1) 감정에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므로 환자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접근이 되더라도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심각한 대화를 상담자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

2) 환자들은 봉사자들의 영적인 관리를 전교활동으로 보는 경우다.

3) 의료활동과 영적인 관리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다.

4)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지식부족의 경우다.

5) 기도나 영적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경우다.

영적관리의 효과

1) 죽음 앞에서 환자가 자기의 기본적인 자력을 이용할 수 있다.

2)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하고도 희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3) 환자의 가족들도 함께 위안을 얻는다.
- 4) 상담자와 자신의 종교의식을 깨닫게 된다.
- 5)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상담자들간의 경쟁심이 사라진다.
- 6) 상담자도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

결 론

호스피스는 모든 종교와 철학을 초월하지만 말기 암환자를 보살핌에 있어 종교적인 의사소통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더 연장 할 수는 있지만 환자들의 죽음을 맞이하여야 한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종교가 없으면 다가오는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큰 두려움의 대상이므로 영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의료진들이 더 이상 가뭄이 없다고 손을 들더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

들은 환자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관리로 그들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어느 세대든지 우리들이 그 세대의 가치에 몰두합니다. 어느나라보다도 오늘날 한국과 한국사람들이 기술과 교육면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성취하느라고 중요한 가치관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 헛된 시간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여행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여행은 자신이 가진 가치를 정리하고 남은 가족들과 나눔을 할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부로 포기하여 안락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되며 또한 지나친 삶의 집착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미련으로 보내서도 안되겠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